

7 광주일보  
제17582호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 만혼으로 이룬 행복한 가정 하룻밤 새 아내·딸 잃다니...

30대, 출산 중 사고에 '통곡'

단란한 '가족'을 이루려던 30대 영세사업자의 꿈은 하룻밤 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광주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는 최모(39·담양군)씨는 지난 19일 밤 10시, 막 태어난 딸아이를 잃었다. 다음날인 20일 오후 8시20분에는 부인 노모(41)씨의 죽음을 눈 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출산 직후 갑작스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모녀가 끝내 숨을 거둔 것이다.

25년 전 어머니를, 20년 전에는 아버지를 차례로 여의고 담양에서 상경(上京)한 최씨는 신문·유류배달을 전전하며 '홀로 사는 법'을 터득했다. '가정'이란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최씨에게 먼 나라 이야기였다.

고아로 살아온 지 20여 년, 노총각 최씨는 지난해 10월 노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노씨는 아이 둘을 가진 이혼녀였고, 나이도 두 살 더 많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6월20일 결혼식을 올렸다. 노씨는 임신 5개월 상태였다.

최씨는 부인의 산통이 심해지자 지난 19일 낮 '이제 제대로 된 가정이 이뤄지는구나'라는 기쁨에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는 진단에 자연분만을 선택했다.

하지만 광주 B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상태가 악화돼 전담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B산부인과 관계자는 "출산 당시 출혈 등은 없었으며 전담 병원을 옮긴 후 숨졌으므로 사인(死因)은 대학병원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결혼 후 반년 지난 1년은 고아였던 내게 10년보다도 더 행복했다"며 "아내와 아이가 죽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23일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기로 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김후진 광주시부시장 교통사고 부상

10·25 재보선의 민주당 후보 지원을 위해 신안군을 방문했던 광주시의회 김후진(59) 부의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6시50분께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에서 광주시의회 김후진 부의장이 타고 있던 '03소 22x'호 그랜저 승용차(운전자 박모·46)가 앞서 가던 최모(48)씨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 부의장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조선대병원 등으로 옮겨졌으나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부의장의 운전자 박씨가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 나주시 공무원들 공문서 위조

4명 입건...나주시 건축비 16억 배상 할 판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채 문화재 인근에 건축허가를 내주 말썬이 일자(본보 6월6일자 11면) 이를 감추려 문화재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나주시는 또 이들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행정소송에 질 경우, 10억원대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시비로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주경찰은 22일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낸 나주시청 개발건축과 임모(38·건축 7급)씨 등 나주시청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허위로 건축서류 등을 공무원들에 건넨 K건축사무소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주시청 5~7급 공무원 등 4명은 지난 5월께 모 연립주택 건축주 김모(43)씨가 사적 제337호로 지정된 나주읍성 인근에 다가구 주택(40가구·연면적 500평)을 신축하기에 앞서, 나주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

를 낸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건축지 임씨는 나주읍성 인근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연립주택 건축주인 김씨에게 500여명의 면적에 다가구 주택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제20조)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 2항)은 문화재 보호구역 200m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나주읍성의 '서성문' 성곽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지상 3층의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내렸다.

뒤늦게 이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안 임씨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성곽 보호를 위해 3층으로 허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말썬이 일자 임씨는 문화재 관련 공무원 등에게 부탁해 건축주인 김씨가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건축주 김씨는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나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나주시를 상대로 현재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효사랑 전국 마라톤 대회

광주시 남구청이 주최한 '제4회 효사랑 전국 마라톤 대회'가 22일 3천여 명의 동호인·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는 효천역~고싸움 전시장~지석사거리 구간에서 5km·10km·하프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개최됐으며, 사물놀이·야생화 사진 전시·무료 시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 광주·전남 '단비'

가을가뭄 상당부분 해소

광주·전남에 단비가 내리면서 농촌 들녘에서 두 달째 지속됐던 가을가뭄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이날 내린 비의 양이 적어다 당분간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는 없어, 완전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완도읍 62mm를 비롯 ▲고

흥 51mm ▲벌교 49mm ▲여수 51.5mm ▲광주 16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에는 10~60mm가량의 비가 내렸다. <표>

기상청은 이날 한반도에 머물고 있던 안정적 고기압이 약해지고, 북서쪽과 남해안에서 접근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안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

### 22일 광주·전남 강수량

| 지역     | 강수량 (오후 7시 현재) |
|--------|----------------|
| 완도읍    | 62.0mm         |
| 완도     | 52.0mm         |
| 고흥     | 51.0mm         |
| 보성     | 51.0mm         |
| 벌교     | 49.0mm         |
| 여수     | 51.5mm         |
| 완도 신지도 | 44.5mm         |
| 광주     | 16.0mm         |

렸다고 설명했다.

지역 농가는 지난달 중순 이후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일부 배추와 무에서 뿌리혹병과 무름병이 발생한 것을 비롯,

콩·마늘·양파 등 대다수 품목에서 병충해가 발생하고 수확량까지 감소하는 등 발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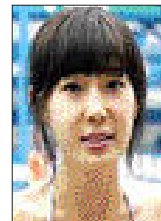
또 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단감에 '동근무늬 낙엽병'이 발생, 잎이 지고 낙과가 생겨 수확량이 20~30%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 과수농가 역시 생육부진과 병충해, 품질 저하에 시달려 왔으나 이번 비로 가을 가뭄이 대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상청은 그러나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밤늦게 비가 그친 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큰비가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지혜 기증 X-레이 사진 인터넷 유통

### 상나팔



○...가수 이지혜(사진)의 가슴 X-레이 사진이 개인 간과 일공유 프로그램(p2p)을 통해 인터넷에 유통돼 소속사 등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지혜는 SBS '수명연장 프로젝트' TV 종합병원' 녹화를 위해 유방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총 4장의 X-레이 촬영을 했으며, 파일 위쪽에는 '이지혜'라는 이름과 촬영 일시 등이 적혀있었다는 것.

○...소속사 관계자는 "방송 제작진과 만나 '수명연장 프로젝트 TV 종합병원' 프로그램 컴퓨터에 저장된 X-레이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작진의 컴퓨터·이지혜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의 유통 경로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LG JILLIN**

##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COMBINE, TNGT, 20 AUDIO, Lafuma,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당점  
110000511-0249

**SONY 광주전시장 새만장 기념 사은행사**

10월 주말 한정 특가 SALE

행사 1: TV·블루레이·디지털카메라 구매고객에게 10% 할인쿠폰  
행사 2: 디지털카메라 구매고객에게 삼성대 용량 150대 한정  
행사 3: 소니 DSR-A100 구매고객에게 푸짐한 사은품 증정

11월 10일까지  
행사 1: TV·블루레이·디지털카메라 10% 할인쿠폰  
행사 2: 디지털카메라 구매고객 예뻐리+가방 증정